

# “쿵 하고 시멘트 조각 떨어졌다” 광주 동운고가 통제



1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동운고가(경신여고~운암동 방향)에서 이상 소음이 들린다는 민원이 접수돼 경찰 등 관계당국이 주변 통행을 통제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1973년 건설돼, 주민들 철거요구 잇따라 13m 추정 교각서 시멘트·자갈 추락 추정 관계기관 정밀 진단 거쳐 후속 조치 방침

광주 도심 고가도로 교각에서 큰 소리와 함께 시멘트 덩어리 등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주변 통행을 통제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

전 11시3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동운고가도로(경신여고~서광주IC 방면)에서 ‘쿵 소리와 함께 교각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이는 시멘트·자갈 등이 지면에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고가 주변 주민들은 “지면에 ‘쿵’소

다행히 관련 인명·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광주시와 북구청, 경찰,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은 곧바로 해당 고가도로 교각(Pa11) 상·하부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했다.  
또 건설업체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를 불러 정확한 경위와 교각 구조 안전도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해당 교각(13m 추정) 주변에 놓인 시멘트 조각 등을 수거해 정밀 진단할 방침이다.  
고가 주변 주민들은 “지면에 ‘쿵’소

리가 크게 울릴 정도로 큰 조각이 떨어졌다. 위험 징후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구조 점검 설비 등을 동원해 정밀 진단을 벌이는 한편, 후속 안전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1973년 지어진 동운고가도로는 서광주 IC와 광주 도심을 잇는 교통 관문이자 도심 중심도로다. 그러나 급경사, 급커브 구조로 인해 교통 체증, 교통사고, 결빙 등이 잦았다. 이에 따른 주민 불만이 컸고 철거 요구도 잇따랐다.  
박선미기자

## ‘붕괴 참사’ 수사, 현대산업개발 책임·조합 비위 정조준

### 경찰, 현대산업개발 책임 집중 추궁, 신병처리 검토 중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원청업체 현대산업개발의 책임 규명과 재개발 조합 관련 비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붕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실 날립 철거 공정, 안전 관리·감독 부재와 관련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 측 책임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현재까지 붕괴 참사의 직접적 책임과 연관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입건자는 8명이다. 이 중 한술현 장소장과 굴삭기 기사(백술 대표), 감리자 등 3명만이 구속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붕괴 당시 철거 현장에 있었고, 붕괴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과다 살수’(먼지 날림을 줄이기 위해 뿌리

는 물의 양을 2배로 늘림)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 측 추가 신병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 측은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할만한 사고 예견 가능성조차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참고인 진술과 조만간 나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주 중 후속 신병 처리를 적극 검토한다. 철거 공법상 문제, 살수량 급증이 철거물에 미친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한다면 원청업체 측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다.  
붕괴 원인 규명 발표는 오는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발표 내용은 국과수 통보 최종 감정

결과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조만간 전달할 1차 분석 내용도 참고한다.  
참사 근본 배경으로 꼽히는 불법 하도급 계약 구조와 재개발 조합 비위 전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불법 하도급 관련 입건자는 이미 구속된 백술 대표와 한술현장사무소장을 비롯해 6명이다.  
나머지 4명 중 2명은 하청 계약 없이 일반건축물 철거 공정에 관여하고, 신생 무자격 업체 백술이 지정건축물(석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재하청을 준 다원이앤씨 임직원이다.  
이 밖에도 석면 해체 면허를 빌려준 업체 관계자와 석면 철거 감리업체 대표가 있다. 다만 석면안전관리법 상 양벌 규정이 미비한 탓에, 실제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맡은 ‘감리자’가 아닌 업체 대표(감리인)를 입건했다.  
기동취재본부



해운대 시원한 물놀이 부산지역에 사흘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11일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 ‘폭우 생채기’ 광주천변, 출입 통제·응급 복구 시급



“언제 복구되려나...아슬아슬한 구간은 안전 조치라도 해야죠.”  
장마 전선이 물러간 지난 9일 오후 광주 서구 천변 양동교 산책로엔 수마가 활판 생채기가 곳곳에 남아있었다.  
하천 하류 방향으로 일제히 누운 수초와 수면 위에 동동 뜬 부유물은 최근 내린 기록적 장맛비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광주천엔 일부 징검다리까지 떠내려 유실됐고, 천변 둔덕 곳곳이 무너졌다.  
반면 부서진 천변 시설물 주변에 대한 출입 제한 등 안전 조치는 미흡했다. 교각 밑 징검다리는 불어난 물에 잠겼지만, 출입을 제한하는 노란 ‘안전 띠’는 천변 한 편에만 둘러져 있었다.

### “사고 위험 구간” 통행 제한 미흡

어떤 시민은 무심코 통제선이 없는 쪽에서 징검다리를 건너려다, 가파른 물살을 보곤 소스라치게 놀라 급히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하천과 맞닿은 둔덕이 파손돼 토사가 흘러내렸지만, 안전 표지판도 보이지 않았다. 천변길을 달리는 자전거 행렬은 1m 깊이로 파인 구덩이 옆을 아슬아슬 비껴 지나갔다.  
김모(53)씨는 “폭우로 파손된 시설에 대한 복구는 더디더라도, 출입 통제라도 철저히 해야 한다. 허술한 시설물 관리로 자칫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빛고을마루’ 산책로에선 한 주민이 떠내려간 보도 블록을 손수 복구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주변에는 가파른 유속에 인도에서 떨어져 나온 빨간·흰색 벽돌 더미가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었다.  
한모(63·여)씨는 “(길 가는 시민들)

발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하면 어쩌냐”며 “벽돌을 주워다가 제 자리에 놓고 있다”고 말했다.  
100여 m 간격을 두고 떨어진 제방 2곳은 폭우로 불어난 하천 물에 무너진 뒤 방치되고 있었다. 돌 제방에서 나온 듯한 큼직한 자갈과 함께 흩더미가 천변 양쪽 산책로 곳곳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한동안 천변 일대를 둘러보던 한 시민은 꺼진 지반 주변을 발로 눌러보며 “언제쯤 복구가 제대로 되려나...”라고 염려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리 주체인 광주환경공단과 함께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대로, 안전 조치와 함께 긴급 복구 공사를 벌이고 있다. 수해 쓰레기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며 “장마철이 끝나면 예산 확보·발주 과정을 거쳐 전 구간 복구를 마무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서선욱기자

### 출소 나흘 만에 전자발찌 전원 끄고 활보 50대 징역형

**징역 1년 선고**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나흘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여러 차례 중전 지시에 불응한 50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중근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

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부터 3월 20일 사이 3차례에 걸쳐 전자장치 전원을 꺼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광주보호관찰소장의 중전 지시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24일·28일과 3월 27일 술집 3곳에서 술과 음식값 25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4월 12일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 강제추행)로 징역 2년 6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오유나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